"내가 그린 광복절 태극기" 오는 15일 제 65주년 광복절을 맞아 12일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가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그린 태극기를 펼쳐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성군 수능 전국 1위

45%가 언어·외국어·수리 1~3등급

2009 성적, 광주 서·남·북구·담양군도 20위권

장성군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 장성 지역 응시생 중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가 언어·외국어·수리 가형·수리 나형 등 각 영역마다 3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수능점수 분포를 통해 본 학교간·지역간 학력편차 연구'에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의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12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수능 상위권(1~3등급) 비율이 언어영역은 44%, 외국어영역 45%, 수리 가형 44%, 수리 나형 46% 등으로 각 부분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광주 서구·남구·북구, 담양군 등 4개 지역도 언어·외국어·수리 가 및 나 등 각 영역에서 모두 20위 안에 들어 광주·전남에서는 총 5개 지역이 4개 영역 평가 전국 20위에 진입하는 두각을 나타냈다. 또 광주 광산구·화순군·해남군 등 3개 지역은 각 한개 분야 영역에서 20위에 포진했다.

광주 서구는 수능 상위권(1~3등급) 비율이 언어영역은 32%로 전국 7위, 외국어영역 36%(8위), 수리 가형 39%(4위), 수리 나형 37%(5위)로 모두 10위권에 드는 실력을 보였다.

광주 남구는 언어영역 31%(11위)·외국어 영역 32%(12위)·수리 가형 33%(7위)·수리 나형 31%(13위) 등이며, 광주 북구는 언어영역 29%(12위)·외국어영역 32%(16위)·수리 가형 33%(9위)·수리 나형 34%(9위) 등이다. 담양군은 언어영역 28%(18위)·외국어영역 31%(18위)·수리 가형 32%(10위)·수리 나형 31%(12위) 등이다.

광주 광산구는 수리 가형이 30%로 17위를, 화순군은 언어영역 28%(16위), 해남군은 수리 가형 32%(12위) 등으로 각각 한 분야에서 전국 20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언어·외국어·수리 가형 및 나형 등 4개 영역에서 한번이라도 상위 20위권에 속한 시·군·구는 모두 31개(평준화 22개, 비평준화 9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지역에서는 4개 영역에서 모두 20위권에 속한 곳은 강남·서초·송파·양천구 등 4개 구에 불과해 광주·전남지역보다 1곳이 적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초·중·고교에서 '독도 수업' 한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주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독도 수업'이 일선 초·중·고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관련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내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5학년) 등 5과목과 2012년 펴낼 고교 한국지리·동아시아사 등 4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 2014년 이후 발간할 초교 사회·도덕, 고교 동아시아사·세계지리·법과사회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명예회복 직접 나섰다

공제조합 기틀 … 200여명 가입·기금도 2억 넘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조직한 공제조합이 1년여 만에 기틀을 잡는 등 피해자 스스로 명예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은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이르며, 이를 위해 모인 기금도 2억원을 넘어섰다.

일제 피해자들과 이들을 돕는 각계 인사 등 2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일제 피해자 공제조합'을 창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8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이 합리적인 보상법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보완책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애초 조합원 모집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들에겐 광복 60여년만에 지급된 위로금 2000만원(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근거)의 5%(100만원)를 기금으로 납부해달라는 요청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 징용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의 첫 납부를 시작으로 6개월만에 기금 1억원을 돌파했고, 이 과정에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광주시) 할머니와 이금주(광주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장 등이 조합에 참여하면서 공제조합 결성은 활기를 띠었다.

결국 창립 1년2개월 만인 현재 조합원 200여명이 가입해 기금이 2억원을 넘었다.

조합원은 개인당 100만원을 기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자 수익으로 조합이 운용된다.

기금은 정부의 지원법 개정,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여러 단체의 활동 등에 지원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집중호우 틈타 폐수 무단 배출 16곳 적발

영산강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장마철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비해 지난달 29일까지 전남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모두 16건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영암 A축산 등 5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폐수배출업체와 공공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 등 모두 181개소를 대상으로 처리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고의적·반복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향응 의혹 '스폰서 특검' 김종남 특검보 사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를 돕는 세 명의 특별검사보 가운데 김종남 특검보가 12일 사퇴했다.

김 특검보는 '2000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투서와 관련해 검찰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관계를 떠나 특검팀 전체에 누를 끼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민 특검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김 특검보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법조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후임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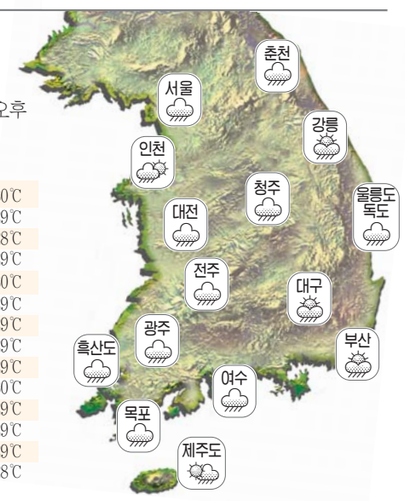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0분 해짐 19시 24분 / 달뜸 09시 18분 달짐 21시 04분

시원한 빗방울

흐리고 가끔 비가 온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6/30℃
목 포	흐리고 비	25/29℃
여 수	흐리고 비	25/28℃
완 도	흐리고 비	25/29℃
구 례	흐리고 비	25/30℃
해 남	흐리고 비	25/29℃
장 흥	흐리고 비	25/29℃
고 흥	흐리고 비	24/29℃
순 천	흐리고 비	25/29℃
영 광	흐리고 비	25/30℃
진 도	흐리고 비	25/29℃
전 주	흐리고 비	25/29℃
남 원	흐리고 비	23/29℃
흑산도	흐리고 비	24/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20 16:42	09:28 21:44
여수	11:13 23:29	04:52 17: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 씨						
최저/최고	26/33	25/31	25/31	24/31	24/32	24/32

찜통더위 한풀 꺾여

광주·전남 흐리고 가끔 비 … 일부 천둥·번개도

13일 광주·전남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지역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도 예상된다. 예상 강우량은 10~40㎜.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지만 비가 뿌려질 것으로 보이는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28~30도로 전날보다 2~3도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또한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14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15일과 16일에는 또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전남 수형자 95명 광복절 가석방

광주교정청

광주교정청(청장 고정석)은 산하 8개 교도소 모범 수형자 95명에 대해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을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도소별로는 광주 21명, 순천 14명, 목포 18명, 장흥 3명, 해남 3명, 전주 15명, 군산 19명, 제주 2명 등이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번 가석방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사기 등 주로 일반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